

김보람 대표 “올초 안무가로 미국 진출했죠”



‘스타 안무가’ 김보람(33·사진)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를 이끌고 있다. ‘애매 모호한(ambiguous)’이라는 뜻을 지닌 컴퍼니 대표지만 개성이 넘쳐난다. 뒤로 넘겨 놓은 머리와 검은 수염,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스타일도 예사롭지 않다.

2000년대 초중반 가수 엄정화·이정현·조성모 등의 백업 댄서로 일한 그는 현대 무용가로 변신했다. ‘인간의 리듬’으로 한국춤비평가회 2014 작품상을 받는 등 성장 을 거듭했다. 합창과 비보잉은 물론 현대 무용, 발레, 한국무용 등을 아우르는 전방 위적인 춤을 선보이고 있다. 윌트와 재기가 넘친다.

인간의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한 몸짓들이다. 덕분에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현대무용계 가장 뜨거운 컴퍼니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산문화재단의 상주 예술단체가 됐다.

최근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김보

람은 “안산은 서울과 무용 시장과 활동이 다르다”며 “서울은 페스티벌 위주의 공연이 많은데 안산에서는 자체 제작 공연이 많다 보니 순수 일반 관객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무용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이 온다. 근데 안산은 일반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온다.”

지난달 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펼친 올해 첫 기획공연인 ‘애매모호한 밤’에서 특히 체감했다. 무용수들의 고충 등을 다룬 이 작품을 본 학생들이 관객과 대화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물어라”고 전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안산 지역의 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 공연마다 관객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춤은 어떻게 추게 됐고 어떤 점이 힘든지 물어라. 요즘 아이들이 현실적이라는 걸 느꼈지. 자기 꿈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 안산에

엄정화 이정현 백업댄서서 현대무용가 변신후 설립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국내 현대무용 리드 ‘각광’

서 공연을 통해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김보람은 안산에서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거처도 서울에서 최근 현지로 옮겼다. “상주 단체가 되니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리로 인해 안산에 무용을 관람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상주 단체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무용에 대한 고정 관객을 만들고 싶다.”

한국현대무용협회의 ‘제35회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16’(18~29일 대학로 일대)를 통해 선보이는 ‘봉숭아’(21일 오후 5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는 지난해 말 안산에서 먼저 선보여 호평 받은 작품이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다원예술작품 ‘예술을 위한 조화’ 중 생명의 탄생 장면을 발전시킨 작품이다. 신비로운 여성들의 세계를 그린다. 원초적인 몸과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5명의 무용수들은 수영복, 가죽재킷, 한복, 잠옷, 원피스 등을 입고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무용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몸짓들이다. “무용수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 안무 작업이라는 것이 안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김보람이지만

최근 슬럼프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빠듯한 스케줄 때문이다. ‘봉숭아’ 공연에 이어 6월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신작 ‘언어학’을 선보인다. 6월 11, 12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춤 경연 대회 ‘댄스 엘라지’에도 참여한다. 올해 설립 8년을 맞이한 컴퍼니의 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도 겹쳐졌다.

“춤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들도 추상적이지만 하는 사람들도 추상적일 수 있다.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계속 작품을 만들면 지치게 된다. 우리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단체다. 내가 어중하개는 잘 하지 못해서 몸으로 직접 부딪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의 조절이 필요하다.”

백업 댄서 시절 김보람의 꿈은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클 잭슨, 마돈나의 백댄서가 되는 것이었다. 올해 초 백댄서가 아닌 안무가 자격으로 미국에 가는 행운을 누렸다. 북미최대의 공연예술마켓인 뉴욕 APAP에 ‘인간의 리듬’ 쇼케이스 공연으로 참가한 것이다.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팍스 초이스’에 선정된 이후 미국 에이전시와 계약이 체결됐다.

“2차례 쇼케이스를 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안무가로 막상 미국에 가니까 별거 많지 않더라. 그런데 미국 시장의 진입이 쉽지 않다. 앞으로 에이전시상 계속 고민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최태성 교사, 알기 쉬운 한국사 강의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한국사 인기 강사인 최태성 대광고등학교 선생님과 손잡고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강의 <큰 별쌤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문화재>를 제작하여 1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화재를 시대별·주제별로 정리하여 20분 내외 분량으로 총 20강에 걸쳐 알기 쉽게 보여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태성 선생님의 재미있는 강의를 따라가면서 풍부한 사진과 영상, 삽화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문화재를 접하다 보면, 일부러 문화재 이름 등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강의는 문화유산채널www.k-heritage.tv를 비롯하여 네이비 TV캐스트, 유튜브 등에서 만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생뿐만 아니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준비생, 역사와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공연

19일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서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국악예술무대 ‘풍속화첩, 신분 속 춤 이야기’ 상설공연이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민족 여인들의 신분별 춤에 깃든 삶의 희로애락과 정서를 표현한다. 무대는 화관무, 산조무, 강강술래, 말뚝이 춤, 미알할미과장, 동초 수건 춤(최선류), 장고춤(진유림류), 버꾸춤(서한우류) 등의 춤으로 구성된 5개의 첩으로 꾸며진다.

첫 무대 <궁·화관무>는 궁중 풍으로 품게 단장한 무인들이 궁중무 복식에 화관을 쓰고 긴 손뼉에 착용하는 긴 소매의 색한삼을 공중에 뿌리면서 추는 춤으로 화사하고 고운 자태가 묻어난다.

이는 궁중무용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무대 감각으로 창작한 무용으로 복식만이 궁중무와 유사한 뿐 연출방법은 그와 달리한다. 이어지는 <담장 넘어 산조무>는 산조음악에 해석과 내공을 바탕으로 한 산조춤으로 여인의 절개와 아름다움이 섬세하게 표현된다. <저자거리에-강강술래, 강령탈춤 중에서 말뚝이 춤과 미알할미과장>는 서민들의 기원과 애환, 제의식을 선보인다.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국악예술무대에서 장고춤 공연을 펼치고 있다.

<노류장화-동초 수건 춤과 장고 춤>에서 동초 수건 춤은 기방 기녀들의 한과 혼이 담겨진 일명 입춤이라고도 불리며, 섬세한 발 디딤과 흥, 멋이 배어있다. 장고 춤은 경기민요, 노랫가락, 창부타령에 어우러지는 춤으로 여성스러운 기교가 발산된다.

마지막 무대인<만발-버꾸춤>은 전라남도 해안지역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와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타악의 가락에 어우러

진 역동적인 춤이다. 이날 공연에는 이은하 전북도립국악원 수석단원이 사회를 맡아 우리 춤에 대한 해설을 곁들인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관객들은 당일 1시간 전(6시 30분) 현장에서 선착순 무료로 배포되는 표를 받아 입장하면 된다. 문의 290-6840. /정해은 기자

키예프 국립발레단 내한공연 “150년 역사 명성 이어가야죠”

키예프 국립발레단이 속한 키예프 극장은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67년 설계됐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다. 모스크바의 볼쇼이극장(182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극장(1890)과 함께 러시아 3대 극장으로 통한다.

키예프 국립발레단이 150주년을 맞아 9년 만에 내한공연한다. 특히 젊은 무용수들이 함께한다.

이 발레단을 대표하는 무용수는 발레리코프턴이다. 키예프 발레학교 재학 중 ‘스완 레이크(Swan Lake)’로 데뷔했다. 이후 20년간 키예프 국립극장 수석무용수로 활약했다.

키예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알레시아 사이타노바(Oksya Saitanova)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부심과 함께 150년 역사의 극장 명성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전 무용수들의 세계적인 명성을 따라야 하는 후배로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볼쇼이극장, 마린스키 극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젊은 무용수들이 많아 차별화된다”고 했다. /이성주 기자

전통문화·미디어아트 만남 ‘심청, 한국의 소리를 듣다’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운영하는 한국의집이 17일부터 전통예술 상설공연 ‘코리아(KOREA) 심청(心淸): 한국의 소리를 듣다’를 민속극장 무대에 올린다.

‘코리아 심청’은 고전 소설 ‘심청전’과 현대 미디어아트가 만난 새로운 장르의 전통예술 공연이다. 기존 한국의집 상설공연이 가(歌)·무(舞)·악(樂)으로 이뤄진 옴니버스 형식이었다면 ‘코리아 심청’은 ‘심청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무용·영상·드로잉을 결합했다.

‘심청전’의 이야기 전개와 조화를 이휘 오고무·아리랑·선녀춤·시나위·대평성대·관소리·부채춤·농악·대동놀이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차례로 무대 위에 펼쳐진다. 특히 홀로 그램과 영상을 활용, 극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 심청과 심봉사, 팽파가 무대가 아닌 객석에서 등장하고 관객을 무대로 초대하는 등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총연출은 너비퍼포먼스 ‘점프’와 ‘비밥’을 성공시킨 최철기가 한다. 매일 오후 6시 30분, 오후 8시 30분 두 차례 공연된다.

매주 수요일 1회 공연은 ‘스페셜, 코리아 심청’으로 진행된다. 본 공연 전에는 명인·명창이 함께하는 특별 무대가 열린다. 예매는 한국의집 누리집(www.koreahouse.or.kr)에서 하면 된다. 전 좌석 5만원이다.

한국의집 전통예술 상설공연 시리즈는 지난 35년간 공연 1만7500여 회, 관객 170만 명을 기록했다. /이성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17일>

<p>▷쥐띠 46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때. 60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계약에 좋은 운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 84년생: 정신이 없지 않으니 편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p>	<p>▷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은 삼가라. 61년생: 여성은 늦은 밤 외출을 삼가라. 73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처음에는 고난이 있으나 이겨나면 끝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62년생: 물 흘러가듯 상황에 따라가면서 대처하라. 74년생: 익숙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방심하면 실수가 따르니 주의하라. 86년생: 상대에게 통보하는 식의 행동은 금물.</p>	<p>▷토끼띠 51년생: 타인의 도움은 받기 어려우니 혼자 비뚤게 움직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6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구실을 주의하라. 75년생: 이성의 조언을 구하면 해결방법이 보인다. 87년생: 급하게만 서두르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p>
<p>▷용띠 52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경계방동을 삼가라. 64년생: 직적으로 움직이면 해결되는 운이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오행이 생기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 88년생: 새로운 것을 취하기보다는 옛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p>	<p>▷뱀띠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앞으로 나가는 때가 아니다. 77년생: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89년생: 경쟁자, 동기간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자중하라.</p>	<p>▷말띠 54년생: 생자의 전원이 필요할 때이다. 66년생: 매사 행동하기 전에 미리 말로 신뢰를 주고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7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90년생: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결실 맺어.</p>	<p>▷양띠 55년생: 심적으로 불안한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운이나 말로 인한 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9년생: 조심스럽게 전진한다면 좋은 결과 얻어. 91년생: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운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급하게 목적 달성을하려 하지 마라. 68년생: 두 수를 앞서가게 되면 판단오류가 생기는 운. 80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92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운. 즉흥적으로 대처하면 불리하다.</p>	<p>▷닭띠 57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69년생: 무식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81년생: 한쪽에만 집중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어찌 둘을 얻을 수 있겠는가. 93년생: 빛 사람의 조언에 해답이 들어 있으니 도움을 받아라.</p>	<p>▷개띠 46년생: 구슬수와 시비가수 쉽게 따르는 운. 58년생: 금전운이 막혀 있는 형국. 70년생: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2년생: 자신의 위치를 피라하고 무리한 시도는 삼가야 하는 운.</p>	<p>▷돼지띠 47년생: 현상 유지하면 잃지는 않으니 큰 움직임은 피하라. 59년생: 타인과의 중요한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71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83년생: 이성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p>